

中國語 韻母 /iong/의 音價 分析 및 分類 問題 高찰*

裴銀漢**

〈목 차〉

- I. 緒言
 - II. 中國語의 音節 構造와 發音 敎學
 - III. 韻母 分類法과 四呼
 - IV. 撮口呼의 形成과 介音 體系
 - V. 韻母 /ong/과 /iong/의 分類와 標記 問題
 - VI. 韻母 /iong/의 音價 問題
 - VII. 結語
-

I. 緒言

한국인이 중국어 교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난점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잡 다단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유형을 꼽는다면, 모국어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요소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상의 난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법상의 차이와 어휘 운용상의 차이는, 외국어 교학이라는 맥락에서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감수할 만한 범주로서 흥미로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발음 요소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발음 학습은, 외국어 학습에서 선결되어야 할 기초 과제로서의 부담감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으로 인식된다.

聲調라는 발음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중국어의 특성상, 외국어로서의 중국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어 교학 과정에서 聲調는 발음 학습의 난점을 대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聲調 이외에도 일부 聲母와 韻母의 정확한 발음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한국인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보편적인 난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교수법을 강구해야 하는 교학상의 주안점이기도 하다.

중국어 교학에서 효율적인 교수법을 강구하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 동향은, 이미 다양한 연구성과로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성과와 교학 현장에서의 적절한 활용에 힘입어, 중국어 교학의 효율성은 나날이 제고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 연구성과 중에서, 중국어 발음 분야로는 당연히 중국어 발음의 대표적인 요소인 聲調의 교학 방법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고, 일부 聲母와 韻母 중에서 한국어 발음과는 차이가 있는 요소, 즉 [f]·[tʃ]·[tʃʰ]·[ʃ]·[ʒ] 등의 輔音(子音)이나 [ɿ]·[ʊ]·[ə]·[ɻ]·[y] 등의 元音(母音)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한 연구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 차이를 반영하는 요소 이외에도, 중국어의 [x]와 한국어 /ㅎ/의 변이음 [ç]·[x]·[ɰ]·[h]·[ɦ],¹⁾ 중국어의 [l]나 [ʐ]와 한국어 /ㄹ/의 변이음 [r]·[l]·[ʎ]²⁾ 등과 같이 발음의 유사성에 기인한 혼동 현상도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경주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어는 발음 체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유사한 발음으로 인하여 중국어 발음 교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발음 교학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은 다양한 연구성과로 축적되어 중국어 발음 교학의 질적

1) [x]: 好[xau214], 漢[xan51]

[ç]: 힘[çim], 현대[çə:nde], 향수[çanʑu], 휘파람[çʷypʰaram], 휘다[çʷɨda]

[x]: 흙[xwukʰ], 흑산도[xwʉksʰando]

[ɰ]: 홀룡한[mulljʉŋʰan], 호두[modu], 회담[me:dam]

[h]: 해엄[heɰm], 해[he], 하마[hama], 허파[hʌpʰa]

[ɦ]: 외할머니[we:ɦalmɰni], 토함산[tʰofɦamsan]

한국어 어휘의 IPA 표기는 이호영(1996)의 예시 표기에 근거하였다. 이하 동일.

2) [l]: 老[lau214], 路[lu51]

[ʐ]: 然[ʐan35], 肉[ʐou51]

[r]: 소리[sorʑi], 노루[nʷorʷu], 나라[nara], 실현[ciɾʰjɰn]

[l]: 살[sal], 라디오[ladio], 라면[lamjɰn], 빨래[pʰalle], 신라[cilla], 난로[na:llʷo]

[l]/[ʎ]: 살림[salʑim]/[saʎim], 탄력[tʰa:ʑʌkʰ]/[tʰa:ʎʌkʰ], 낱자[nalʰtʰa]/[naʎtʰa]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일부 발음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재와 오용의 경우에는 중국어 교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중국어의 元音 [y]는 한국어 발음 체계에서의 /기/와 혼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교학의 난점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³⁾ 특히 元音 [y]가 포함된 중국어 韻母 중에서 /iong/의 정확한 音價와 四呼의 分類 문제는 일부 중국어 발음 관련 저서와 논문에서 分歧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音價와 分類 문제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한중 학계의 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 중국어 韻母 /iong/의 音價 및 分類 문제를 분석하여, 중국어 발음 교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3) 국어 母音 체계에서 /기/는 單母音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아래에 제시된 「母音體系表」에서 볼 수 있듯이, /시/와 /기/를 포함하여 單母音을 10개로 규정함으로써, 前舌母音과 後舌母音을 각각 5개씩으로 대칭을 이루어 구조적인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

	前舌母音		後舌母音	
	平唇	圓唇	平唇	圓唇
高母音	ㅣ	ㄱ	ㅡ	ㅈ
中母音	ㅔ	ㅕ	ㅑ	ㅊ
低母音	ㅚ		ㅓ	

이러한 母音 체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標準發音法에서는 單母音으로 규정된 /시/와 /기/를 二重母音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시/와 /기/를 單母音으로 발음하려면 두 입술을 등글게(圓唇) 한 다음 입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는 /ㅔ[e]/를 발음하듯이, /기/는 /ㅣ[i]/를 발음하듯이 발성해야 한다. /시/와 /기/를 二重母音으로 발음하면, /시/는 /ㅓ/를 발음한 후 /ㅔ[e]/를 발음하고, /기/는 /ㅈ/를 발음한 후 /ㅣ[i]/를 발음하기 때문에 입술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 반면에 중국어의 [y]는 單母音이므로 입술 모양에 변화가 발생하는 二重母音의 형식으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II. 中國語의 音節 構造와 發音 教學

중국어 학습 입문 단계의 교과목이나 심화 단계로 진행되는 音聲學·音韻學 등의 교과목에서, 중국어 발음 분야를 학습하는 과정에는 중국어의 音節 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있다. 관련 교과목의 교학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聲母·韻母·聲調로 구성된 중국어의 音節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본격적인 발음 교학은, 音節 구성의 3요소로 지칭되는 聲母·韻母·聲調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론에 진입하여 개별 요소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안을 체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어 발음 교학에서 聲母와 聲調 분야에 대한 기초 단계는, 모국어의 발음 체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발음 학습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聲調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모국어 발음 체계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학습상의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고, 역으로 외국어 학습에 수반되는 신선미로 인해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聲母에 대한 교학은 모국어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학습을 진행한 후, 모국어와의 유사성에 주의하여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聲母 교학의 주된 방향이 된다. 특히, 중국어 학습 입문 단계의 교과목에서는 雙唇音·脣齒音·舌尖前音·舌尖中音·舌尖後音·舌面音·舌根音 등이나 塞音(破裂音)·擦音(摩擦音)·塞擦音(破擦音) 혹은 送氣(有氣音)·不送氣(無氣音), 清音(無聲音)·濁音(有聲音) 등의 학술적 용어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여 초학자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는, /b·p·m·f/ /z·c·s/ /d·t·n·l/ /zh·ch·sh·r/ /j·q·x/ /g·k·h/ 등의 묶음 단위로 구성된 聲母의 학습 과정을 통해 發音 部位와 發音 方法에 따른 聲母의 분류 상황을 자연스럽게 체득함으로써, 향후 진행되는 音聲學·音韻學 등 교과목에서의 심화 학습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聲母와 韻母에 대한 교학은, 한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모국어의 발음과는 다른 체계로 구성된 중국어 音節 구성 요소의 고유 개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 중국어 학습 입문 저서⁴⁾에서 聲母와 韻母를 각각 子音과 母音으로 대체하여 지칭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인 초학자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子音·

母音으로 중국어의 聲母·韻母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 초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후속 단계의 심화 학습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학 내용과는 위배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聲母를 한국어의 初聲으로, 韻母를 中聲 혹은 中聲과 終聲의 결합으로 분석한 일부 저서⁵⁾의 서술 방식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音韻體系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어의 中聲 혹은 中聲과 終聲의 조합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韻母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單母音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두 개의 母音 혹은 세 개의 母音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한 개 혹은 두 개의 母音에 한국어의 終聲 성분에 해당하는 子音이 결합된 형태도 있다. 單母音으로 구성된 경우는 主要元音(韻腹)으로만 구성된 韻母이고,⁶⁾ 두 개의 母音으로 구성된 韻母는 介音(韻頭)과 主要元音의 결합⁷⁾ 혹은 主要元音과 韻尾의 결합⁸⁾으로, 세 개의 母音으로 구성된 韻母⁹⁾는 介音과 主要元音 그리고 韻尾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韻尾는 母音 성분의 경우와 子音 성분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子音 성분의 韻尾¹⁰⁾는 한국어의 終聲에 해당한다. 즉, 중국어 韻母의 구성 요소 중에서 母音 성분은 한국어의 中聲으

- 4) 金英姬 編, 《會話中心 中國語教本-初級》, 서울: 圖書出版 성안당, 1985년 10월, pp.6-19; 정수국·김희숙 공저, 《새내기! 상황중국어 회화》, 서울: 땅따먹기, 2002년 8월, pp.9-24.
- 5) 맹주억·유재원·임대근·정윤철 공저, 《베이직 중국어 회화-1》, 서울: 중국어뱅크, 2008년 10월, pp.14-45.
- 6) 單母音으로 구성된 韻母는 單韻母로 지칭된다. 單韻母를 구성하는 母音(元音)은 [a]·[i]·[o]·[u]·[ɤ]·[y] 등의 舌面元音과 [ɿ]·[ʅ]·[a] 등의 舌尖元音으로 구분된다.
- 7) 介音과 主要元音이 결합된 複韻母를 後響複韻母로 지칭한다.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는 [ia]·[iɛ]·[ua]·[uo]·[ye] 등 총 5개의 後響複韻母가 있다.
- 8) 主要元音과 韻尾가 결합된 複韻母를 前響複韻母로 지칭한다.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는 [ai]·[au]·[ei]·[ou] 등 총 4개의 前響複韻母가 있다.
- 9) 介音·主要元音·韻尾의 구조로 3개의 母音이 결합된 複韻母는 中響複韻母로 지칭한다.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는 [iau]·[iou]·[uai]·[uei] 등 총 4개의 中響複韻母가 있다.
- 10) 子音 성분의 韻尾로 구성된 韻母를 鼻音韻母 혹은 符聲韻母로 지칭한다.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서 韻尾를 구성하는 子音 성분은 [n]과 [ŋ] 두 종류이다. [n]은 발음할 때 혀끝(舌尖)이 주요 작용을 하게 되므로 舌尖鼻音韻母 혹은 前鼻音韻母로 지칭하고, [ŋ]은 발음할 때 혀뿌리(舌根)가 주요 작용을 하므로 舌根鼻音韻母 혹은 後鼻音韻母로 지칭한다.

로 분류되고, 子音 성분은 한국어의 終聲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유로 聲母를 子音으로 그리고 韻母를 母音으로 대체하여 지칭한 일부 저서의 서술 방식은 중국어 音節 구조의 분석에 합당하지 않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韻母의 구성 요소는 介音·主要元音·韻尾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主要元音은 모든 音節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介音이나 韻尾는 구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音節 구성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분석한다면, 중국어는 聲母가 없는 音節¹¹⁾과 介音이나 韻尾가 없는 音節은 존재하지만, 主要元音과 聲調는 모든 音節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¹²⁾

Ⅲ. 韻母 分類法과 四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韻母를 구성하고 있는 音素의 수량과 결합 관계에 근거하여 韻母는 크게 單韻母·複韻母·鼻音韻母의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複韻母는 母音 音素의 결합 관계, 즉 主要元音의 위치에 따라 前響複韻母·後響複韻母·中響複韻母로 나눌 수 있다. 鼻音韻母(符聲韻母)는 [ŋ] 韻尾로 구성된 舌尖鼻音韻母(前鼻音韻母)와 [ŋ] 韻尾로 구성된 舌根鼻音韻母(後鼻音韻母)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音素의 결합 관계에 근거한 분류를 기초로, 韻母를 구성하고 있는 介音(韻頭)·主要元音(韻腹)·韻尾 등 개별 요소의 특성에 따라 韻母를 분류할 수도 있다. 먼저, 韻尾의 차이에 따른 분류법으로는 陰聲韻·陽聲韻·入聲韻의 세 부류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으며, 介音과 主要元音의 차이에 따라 開口呼·齊齒呼·合口呼·撮口呼로 나누는 四呼 分類法이 있다.

韻母를 陰聲韻·陽聲韻·入聲韻의 세 부류로 나누는 분류법에서, 陰聲韻은 韻母가 元音으로만 구성되어 輔音 韻尾가 없는 音節을 지칭한다. 陰聲韻은 現代標

11) 중국어에서는 零聲母 音節로 지칭한다. 한국어에서 音價가 없는 /o/을 初聲으로 사용한 예와 동일하다.

12) 姆·嚙·嘔·唔·嚙·嘔·嘔 등 일부 극소수의 音節은 方言이나 音譯字 혹은 感歎詞로 사용되는 경우에 鼻輔音인 [m]이나 [n] 혹은 [ŋ] 등 하나의 音素로만 音節이 구성되는 예도 있다.

準中國語(普通話)의 音節 構造에 근거할 때, “家·拿·火·借” 등과 같이 韻尾가 없고 主要元音(韻腹)이 音節의 마지막 音素가 되는 경우와, “歸·回·海·快” 등과 같이 韻尾가 [i]인 경우, “休·樓·走·後” 등과 같이 韻尾가 [u]인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陽聲韻은 鼻輔音이 韻尾로 구성된 音節을 지칭한다. 鼻輔音 韻尾는 [m]·[n]·[ŋ]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m] 韻尾는 古代漢語와 일부 現代 中國語 方言에는 존재하지만,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서는 [n] 韻尾로 合併되었다. 예를 들면, “侵·嚴·感·店” 등은 古代漢語와 일부 方言에서는 [m] 韻尾의 例字로서 [n] 韻尾의 “親·言·趕·殿” 등과 발음상 서로 엄격히 구분이 되지만,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서는 각각 “侵·親:[tɕʰin55]”, “嚴·言:[iɛn35]”, “感·趕:[kan214]”, “店·殿:[tʰien51]” 등의 同音 관계로 變化하였다.

入聲韻은 塞音 [p]·[t]·[k]가 韻尾로 사용된 音節이다. 古代漢語와 일부 方言에서 “濕·습·甲·葉” 등은 塞音 [p]가 韻尾로 사용되었고, “出·節·雪·必” 등은 [t]가, “黑·國·百·木” 등은 [k]가 韻尾로 사용된 音節이다. 入聲韻은 近代漢語 이래로 北方音系에서 활발한 音韻變化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音韻變化의 결과, 近代漢語 이후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로 맥을 잇는 北方音系에서는 塞音 韻尾가 소실되고 元音으로만 韻母가 구성된 陰聲韻으로 變化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韻尾의 차이에 따라 韻母를 陰聲韻·陽聲韻·入聲韻의 세 부류로 나누는 분류법은 近代漢語 이전의 古代漢語와 일부 現代 中國語 方言의 韻母體系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법이다.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韻母體系에서는 韻尾로 사용될 수 있는 音素가 元音의 [i]·[u]와 輔音의 [n]·[ŋ] 네 종류로 분석되는데,¹³⁾ [m] 韻尾나 [p]·[t]·[k] 등의 塞音 韻尾가 존재하는 古代漢語 및 일부 方言과는 차이가 있다.¹⁴⁾ 陽聲韻의 경우에 [m] 韻尾가

13)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韻尾를 구성하는 音素로는 [i]·[u]·[n]·[ŋ] 이외에 兒化韻의 [r]을 輔音韻尾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r]의 경우에는 단일 音節 내부의 구성 요소로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어휘의 구성 형식에서 詞綴(接尾辭)로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학계에서 통용되는 견해에 근거하여 [i]·[u]·[n]·[ŋ] 네 가지 音素만을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韻尾로 간주한다.

14) 吳方言이나 江淮方言 등 일부 方言의 경우에는, [p]·[t]·[k] 塞音 韻尾가 약화되어 [p]·[t]·[k] 韻尾 간의 音位 차이는 소실되었지만 喉塞音(聲門閉鎖音)인 [ʔ]의

[n] 韻尾에 合併되는 音韻變化 현상은 일찍이 元代 周德清의 《中原音韻》에 반영된 近代漢語의 音韻體系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p]·[t]·[k] 塞音 韻尾의 소실로 인하여 入聲韻이 陰聲韻으로 변화한 현상도 《中原音韻》에서 “入作某聲”의 형식으로 中古漢語의 入聲字를 배열한 사실에서 그 源流를 찾을 수 있다.¹⁵⁾ 中國音韻學에서 韻母의 변천 과정을 분석할 때, 陽聲韻의 [m] 韻尾가 [n] 韻尾에 合併되는 현상과 入聲韻의 [p]·[t]·[k] 塞音 韻尾가 소실되는 현상은 近代漢語 이후 北方音系 音韻變化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近代漢語 이후의 北方音系를 源流로 하는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韻母體系는 韻尾의 차이에 따라 陰聲韻·陽聲韻·入聲韻의 세 부류로 구분하는 분류법으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 분류법은 陽聲韻과 入聲韻의 韻尾體系가 완전한 변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中古漢語를 비롯한 古代漢語와 일부 現代 中國語方言의 韻母體系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법이 된다.

韻母를 介音과 主要元音의 차이에 따라 開口呼·齊齒呼·合口呼·撮口呼의 四呼로 구분하는 분류법은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韻母體系 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現행 교학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법이다. 中國音韻學史에서 四呼의 개념과 명칭이 정립된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의 기존 연구성과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임동석(1991)과 정영지(2004)를 꼽을 수 있는데, 中古漢語 시기의 開口·合口와 四等の 분류법이 결합된 兩呼四等の 개념으로부터 近代漢語 시기에 이르러 발음의 변화에 근거하여 四呼에 따라 韻母體系를 분류하게 되는 변천 과정에 대하여, 방대한 문헌 자료의 분석 결과를

형태로 入聲韻이 남아 있다. 이는 近代漢語 이후 入聲韻의 약화와 소실이라는 音韻變化 과정을 반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 15) 韻母體系로서의 入聲韻은 聲調體系에서는 平上去入 중의 入聲으로 분류된다. 入聲의 배열 방식에서, 《切韻》·《廣韻》으로 대표되는 中古漢語 韻書, 즉 切韻系韻書에서는 陽聲韻과 入聲韻이 韻尾의 發音 部位에 따라 [m]-[p](雙唇音); [n]-[t](舌尖音); [ŋ]-[k](舌根音)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中原音韻》을 비롯한 近代漢語의 中原系韻書에서는 中古漢語의 入聲字를 “入作某聲”의 형식으로 陰聲韻 韻部の 말미에 수록함으로써 陽聲韻과 入聲韻의 대응 관계를 해체하였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聲調體系뿐만 아니라 韻母體系的 변화 양상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聲調體系的 측면에서는 “入派三聲” 혹은 “入聲消失”, 韻母體系的 측면에서는 入聲韻 韻尾의 탈락으로 인한 陰聲韻化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영지(2004)는 明代 桑紹良의 《青郊雜著》와 李登의 《書文音義便考私編》 및 梅膺祚의 《字彙》에 수록된 《韻法直圖》 등의 문헌에서 四呼의 개념과 명칭이 정립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임동석(1991)에서는 다양한 문헌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四呼가 정립되는 과정과 구체적인 개념 정립의 과정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漢語의 介音 차이에 의한 韓國 漢字音의 변화 양상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四呼 분류법에 근거한 音韻變化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中國音韻學史에서 中古漢語 시기의 等韻圖에서는 開口·合口の 兩呼와 一·二·三·四로 구분된 四等, 즉 兩呼四等に 근거하여 韻母體系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近代漢語 시기에 이르러 발음의 변화로 인하여 兩呼四等の 개념으로는 韻母體系를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兩呼四等の 분류법은 明清代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기 과정을 거쳐 現행 四呼에 해당하는 분류 체계로 대체되었다. 그러므로 四呼를 논하기에는 中古漢語 시기의 呼와 等, 즉 兩呼四等に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中古漢語 시기의 韻母 분류 체계에 의하면, 呼는 介音과 主要元音을 포함한 韻母의 開·合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 等은 洪과 細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 된다. 近代漢語 시기에 형성된 四呼와는 달리, 中古漢語 시기에는 開口와 合口の 兩呼로만 분류하였다. 清代 江永은 《音學辨微》에서 開口와 合口の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音呼有開口合口, 合口者吻聚, 開口者吻不聚也。

呼를 발음하는 방법에는 開口와 合口가 있는데, 合口는 입술을 모아서 발음하는 것이고, 開口는 입술을 모으지 않는 것이다.¹⁶⁾

江永의 견해는 開口와 合口の 차이를 韻母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의 展脣(平脣)과 圓脣 상황에 따른 구분으로 규정한 것이다. 韻母를 구성하고 있는 音素의 관점에서 開口·合口の 兩呼를 분류하는 근거를 분석하면, 介音이나 主要元音에

16) 清·江永, 《音學辨微》, p.15, 〈辨開口合口〉(《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第253卷, p.71下).

[u]가 포함되어 있으면 合口呼이고, 그렇지 않으면 開口呼라는 의미가 된다.

等이라는 개념은 각각의 韻에서 介音(韻頭)의 차이에 따라 韻類를 세분하는 근거가 된다. 《韻鏡》과 《七音略》 등 中古漢語 시기의 韻圖에서는 《廣韻》에 수록된 각 小韻의 代表字를 一等·二等·三等·四等の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배열하였는데, 《廣韻》의 韻에 따른 대분류 아래에 等으로 소분류를 배치한 형식이었기에 韻圖를 等韻圖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江永은 《音學辨微》에서 四等の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音韻有四等, 一等洪大, 二等次大; 三四皆細, 而四尤細。

韻을 발음하는 방법은 네 가지의 等으로 나누어지는데, 一等은 크고 굵은 소리이며, 二等은 그 다음으로 크다. 三等과 四等은 모두 가느다란 소리인데, 그 중에 四等이 더욱더 가늘다.¹⁷⁾

江永이 제시한 洪·細의 개념은, 韻母를 구성하고 있는 元音의 開口도와 혀의 전후 위치에 따른 분류로 분석할 수 있다. 즉, 洪音은 元音의 開口도가 크고 구강 내에서 혀를 뒤로 당겨서 발음하므로 音響의 共鳴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내의 공간이 확장되어 響도가 크다. 細音은 開口도가 작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 발음하므로 響도가 작다. 一二三四等 중에서 一等과 二等은 開口도가 크고 혀가 후방에 위치하는데, 三等과 四等은 開口도가 작고 혀가 전방에 위치하며, 이 중에서 四等은 三等보다 開口도가 더 작고 혀의 위치도 더 전방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韻母를 구성하고 있는 音素의 관점에서 洪·細의 四等を 분류하는 근거는, 洪音인 一等과 二等에는 介音에 [i]가 포함되지 않고, 細音인 三等과 四等은 [i]가 포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介音 이외에 主要元音에서도 洪·細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王力(1980)에서는 一二三四等の 主要元音을 각각 [a]·[a]·[æ]·[e]로 추정하였다.

在古人的韻圖中, 韻母分爲開口呼和合口呼, 每呼分爲四等。依後人考證, 一二三四等的區別在於元音部位由後到前, 如開口一等的韻母是[an], 二等是[a

17) 清·江永, 《音學辨微》, p.16, 〈辨等列〉(《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第253卷, p.72上).

n], 三等是[iæn], 四等是[ien], 合口一等是[uan], 二等是[uan], 三等是[iuæn], 四等是[iuen].

고대 학자들의 韻圖에서는 韻母를 開口呼와 合口呼로 나누고 각 呼마다 四等으로 구분하였다. 近代 학자들의 高證에 의하면, 一·二·三·四等の 구분은 元音의 발음 부위가 구강 내에서 후방으로부터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開口一等の 韻母는 [an]이고, 開口二等은 [an], 開口三等은 [iæn], 開口四等은 [ien]이다. 合口一等은 [uan], 合口二等은 [uan], 合口三等은 [iuæn], 合口四等은 [iuen]이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呼와 等の 개념은 中古漢語 시기의 等韻圖에서 韻母體系를 분류하던 방식이었는데, 近代漢語 이후에는 네 가지의 等 중에서 洪音이 一等과 二等으로, 그리고 細音이 三等과 四等으로 각각 구분되던 차이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兩呼四等の 여덟 가지로 분류되던 韻母體系가 開·合; 洪·細의 개념이 반영된 四呼의 네 종류로 병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清末民初의 章炳麟(太炎)(1869-1936)은 《小學略說》에서 開·合과 洪·細가 四呼에 대응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開合之音, 各有洪細. 開口洪音爲開口, 細音爲齊齒; 合口洪音爲合口, 細音爲撮口。

開와 合의 발음에는 각각 洪과 細의 구분이 있다. 開口洪音은 開口가 되고, 開口細音은 齊齒가 된다. 合口洪音은 合口가 되고, 合口細音은 撮口가 된다.¹⁹⁾

江永和 章炳麟의 서술을 종합하여 中古漢語의 開·合 兩呼와 洪·細 四等이 近代漢語 이후의 四呼와 대응하는 관계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18) 王力, 〈漢語語音的系統性及其發展的規律性(下)〉, 《社會科學戰線》, 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 1980年第2期, p.334. 인용자 주: 원문에는 “開口一等的元音是[a]”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인용문에 예시된 [an]·[iæn]·[ien] 등과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元音”을 “韻母”로, “[a]”를 “[an]”으로 각각 수정하였음.

19) 章炳麟(1936), 《小學略說》(《梁啟超·章太炎解讀中華文化經典》), 沈陽: 遼海出版社, 2003年, p.175)

〈표 1〉

開合	洪細	等呼	音素(介音 / 主要元音)	四呼
開口 [ø]	洪音[ø]	開口一二等	[i] · [u] · [y] 이외의 기타 元音	開口呼
	細音[i]	開口三四等	[i]	齊齒呼
合口 [u]	洪音[ø]	合口一二等	[u]	合口呼
	細音[i]	合口三四等	[i] + [u] ⇒ [iu] ⇒ [y] ²⁰⁾	撮口呼

四呼의 명칭과 개념 정립에 관한 역대 문헌상의 근거 자료 중에서, 국내외 기존 연구성과에서 널리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清代 潘耒(1648-1708)의 견해를 들 수 있다. 潘耒는 《類音》에서 四呼에 관한 견해를 기술하면서, 四呼의 명칭을 제시하고 眞文韻과 元先韻에서의 見母를 예로 들어 해당 例字를 제시하였다. 또한, 音理에 근거하여 四呼의 발음 부위와 입술 모양 등의 발음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何謂四呼? 曰: 開口也, 齊齒也, 合口也, 撮口也。凡有一字即具此四呼。如見母之在眞文韻則爲根巾昆君; 在元先韻則爲干堅官涓。各母各韻無不皆然, 或有字或無字, 而其音具在。

四呼란 무엇인가? 開口 · 齊齒 · 合口 · 撮口이다. 무릇 한 글자가 있으면 四呼가 구비되는 것이다. 見母를 예로 들면, 眞文韻에서는 根 · 巾 · 昆 · 君이 각각 四呼가 되고, 元先韻에서는 干 · 堅 · 官 · 涓이 四呼가 된다. 각각의 字母가 각 韻에서 모두 이리하다. 글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音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²¹⁾

凡音皆自內而外。初出於喉, 平舌舒脣, 謂之開口; 舉舌對齒, 聲在舌齶之間, 謂之齊齒; 斂脣而蓄之, 聲滿頤輔之間, 謂之合口; 蹙脣而成聲, 謂之撮口。

모든 소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처음에 소리가 목구멍(聲門)으로부터 나와서 혀는 평평하게 하고 입술은 편안하게 하여 내는 소리를 開口라고 한다. 혀를 들어 올려 앞니와 맞닿게 하고 소리가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나도록 하는 것을 齊齒라고 한다. 입술을 오므리고 소리를 모아서 소리가 턱과 광대뼈 사

20) 본 표에서는 細音의 요건인 [i]와 合口의 [u]가 결합된 [iu]를 [y]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音素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IV장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21) 清 · 潘耒 《類音》卷一, p2, 〈聲音元本論(上)〉(《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第258卷, p.6下).

이에 가득하도록 해서 내는 것을 습구라고 한다. 입술을 오므리고 뼈죽이 내밀어서 내는 소리를撮口라고 한다.²²⁾

潘耒는 현행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四呼의 네 가지 명칭을 제시하고,²³⁾ 각각의 발음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300여 년 전의 학문적 배경과 자료상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처럼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던 潘耒의 견해는 학술적 기여도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古漢語 시기의 等韻圖에서 韻母體系를 분류하던 방식이었던 等과 呼의 분류법은 近代漢語 이후 明清 等韻學의 발전에 힘입어 장기간의 변천 과정을 거쳐 현행 四呼 분류법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雲南省 昆明 등지의 西南官話, 廣東省 梅縣 등지의 客家方言, 福建省 廈門 지역의 閩方言 등에서는 撮口呼가 나타나지 않는 등 現代 中國語의 일부 方言에서는 開口·齊齒· 습구·撮口の 四呼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한 개별 音節에서 現代標準 中國語(普通話)의 四呼 분류법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²⁴⁾ 이는 南方音系와 北方音系의 발전 과정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판단된다. 현행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四呼의 조건과 이에 해당하는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音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開口呼는 介音이나 主要元音에 [i]·[u]·[y]가 포함되지 않은 韻母로서, 阿[a]·該[kai]·單[tan]·康[kʰaŋ]·高[gau]·車[tɕʰy]·黑[xei]·深[ɕən]·耕

22) 清·潘耒《類音》卷二, p4, 〈四呼圖說〉(《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第258卷, p.16上).

23) 四呼의 네 가지 세부 명칭으로 사용되는 “開口·齊齒· 습구·撮口”라는 용어는 일찍이 明代에 李登의 《書文音義便考私編》과 梅膺祚의 《字彙》에 부록으로 수록된 《韻法直圖》·《韻法橫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書文音義便考私編》·《韻法直圖》·《韻法橫圖》 등에 출현하는 관련 용어는 開口·齊齒· 습구·撮口 이외에도 閉口·齊齒捲舌·齊齒而閉·舌向上·咬齒·混呼·抵齒·正齒·開口抵齒·閉口抵齒 등의 명칭이 병존하며, 지칭하는 개념도 介音과 主要元音의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捲舌이나 舌向上 등과 같이 聲母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거나, 혹은 閉口 등과 같이 韻尾의 차이에 따른 분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四呼의 네 가지 세부 명칭을 정립하고 각각의 발음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潘耒의 견해로 평가된다. 唐作藩(1987:47), 정영지(2004:324-332) 참조.

24) 唐作藩(1987), 《音韻學教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年 8月, 第三版, p.47) 참조.

[kəŋ] · 而[ə] · 詩[ʃu] · 資[tsɿ] · 噢[o] · 歐[ou] 등이 있다.

齊齒呼는 介音이나 主要元音에 [i]가 포함된 韻母로, 一[i] · 踢[tʰi] · 家[tɕia] · 香[ɕiaŋ] · 標[piau] · 椰[iɛ] · 爹[tie] · 煙[iɛn] · 篇[pʰiɛn] · 斤[tɕin] · 兵[pin] · 優[iou] · 秋[tɕʰiou] 등이 있다.

合口呼는 介音이나 主要元音에 [u]가 포함된 韻母로, 烏[u] · 孤[ku] · 花[xua] · 乖[kuai] · 穿[tɕʰuan] · 光[kuaŋ] · 威[uei] · 推[tʰuei] · 溫[uən] · 春[tɕʰun]([tɕʰuən]) · 翁[uən] · 中[tɕun] · 鍋[kuo] 등이 있다.

撮口呼는 介音이나 主要元音에 [y]가 포함된 韻母로, 迂[y] · 居[tɕy] · 約[ye] · 缺[tɕʰyɛ] · 淵[yɛn] · 宣[cyɛn] · 暈[yn] · 君[tɕyn] · 雍[yn] · 兄[cyŋ] 등이 있다.

IV. 撮口呼의 形成과 介音 體系

Ⅲ장의 <표 1>에서 中古漢語의 兩呼四等이 近代漢語 이후의 四呼와 대응하는 관계를 비교하면서, 撮口呼를 구성하는 音素의 요건을 介音 혹은 主要元音이 [y]인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는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韻母體系 분석 방식에 따라 해당 音素를 규정한 것인데, 前舌圓脣高母音 [y]의 형성 과정은 中國音韻學史에서 韻母體系的 변천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音韻變化의 일례가 된다. <표 1>에서는 中古漢語 시기에 細音의 요건인 [i]와 合口 [u]가 결합된 [iu]를 [y]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 [iu]의 성격과 [iu]가 [y]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韻母體系的 변천 과정을 介音의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Ⅲ장에서 王力(1980)의 견해를 인용한 바와 같이 中古漢語 시기에는 [i]와 [u], 그리고 [i] · [u]가 결합된 형태인 [iu]의 세 종류의 介音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⁵⁾ 학계의 기존 연구성과에 의하면, [i]의 포함 여부로 洪音과 細音을 분류하고, [u]의 포함 여부를 開口와 合口の 분류 근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合口 中的 細音은 [iu]라

25) 王力(1980:334)에서는 合口三等과 四等の 추정음을 각각 [iuən]과 [iuen]으로 제시하였는데, 두 韻母에서 主要元音 [ə]와 [e]의 앞에 위치한 [iu]는 介音이라는 단일 요소로 분석된다.

는 音素의 要件을 구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an]이라는 韻母는 [u]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開口이고 또한 [i]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洪音이다. 즉 [an]은 $-(u)-(i)$ 의 조건이므로 開口洪音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원리로 $-(u)+(i)$ 의 조건하에서 [ian]이라는 韻母는 開口細音으로, $+(u)-(i)$ 의 조건으로서의 [uan]이라는 韻母는 合口洪音으로, 그리고 $+(u)+(i)$ 의 要件을 구비한 [iuan]은 合口細音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iu]를 독립된 [i]와 [u]의 병존 형태로 간주한다면, [iuan]이라는 추정음(再構音)의 音素 결합 구조는 介音+主要元音+韻尾로 분석되는 中國語의 韻母 구성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때문에 唐作藩(1987)에서는 古代漢語에서 [i]와 [u]가 각각 介音(韻頭)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音素가 결합하여 介音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⁶⁾ 즉, [iuæn]이나 [iuan] 등의 韻母에서 [iu]를 合口 中的 細音을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하여, [an]이라는 音節에 介音 [iu]가 부가된 형식으로 추정한 것이다.

中古漢語 시기에 細音 표지로서의 [i]와 合口 표지인 [u]가 결합된 [iu]라는 音素가 과연 두 音素의 임시 결합 형태인지, 아니면 단일 音素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音價를 單定할 수는 없다. 介音으로서의 [iu]는 일부 학자들의 선행 연구에서 中古音의 추정음으로 合口細音, 즉 合口呼 三四等を 표기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다. 이처럼 介音이라는 단일 요소를 표기하는 형식으로 [iu]라는 추정음을 사용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독립된 두 音素의 단순 조합 형식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단일 音素로 변해가는 과도기의 형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明代에 이르러 [iu]가 단일 音素인 [y]로 변화한 音韻變化 과정에 대하여 정영지(2004)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명초의 《洪武正韻》과 《韻略易通》에서는 魚韻과 模韻을 나누었는데, 이는 魚韻의 [iu]가 [y]로 변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개음 [y]가 이 때 변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²⁷⁾

26) 唐作藩(1987), 《音韻學教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年 8月, 第三版, p.46)

27) 정영지(2004: 322). 인용자 주: 《韻略易通》에서 《中原音韻》의 魚模韻을 居魚韻과 呼模韻으로 分立시킨 현상은 元音 [y]가 형성된 근거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洪武正韻》의 韻部體系를 元音 [y]의 형성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明初에 형성된 元音 [y]는 介音과 主要元音을 구성하는 音素로 활용되면서, 韻母體系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여 中古漢語와 近代漢語의 차이를 반영하는 일례로 평가된다. 元音 [y]와 撮口呼와의 관계 그리고 발음 방법에 대하여 王力(1955)에 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撮口呼必須有元音的[y](韻腹)或半元音的[y](韻頭)。這[y]乃是[i]與[u]的混合音, 舌的姿勢像[i], 脣的姿勢像[u], 并不是十分普通的音。俄語與英語裏就沒有它。德語雖有元音的[y], 却也沒有半元音的[y]。法語才是二者兼備的。

撮口呼는 반드시 元音인 [y](韻腹)나 半元音인 [y](韻頭)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y]는 바로 [i]와 [u]가 혼합된 음이다. 혀의 모양은 [i]처럼 하고, 입술의 모양은 [u]처럼 하여 발음하는 것인데, 결코 일반적인 발음이 아니다. 러시아어와 영어에는 이 발음이 없다. 독일어에는 元音인 [y]가 있지만, 半元音으로서의 [y]는 없다. 프랑스어에만 元音인 [y]와 半元音 [y]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다.²⁸⁾

王力(1955)은 [y]를 [i]와 [u]가 혼합된 음으로 규정하고, 介音(韻頭)으로 사용된 [y]는 半母音(半元音)으로, 主要元音으로 사용된 [y]는 元音으로 구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y]가 결코 일반적인 발음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른 언어에서도 흔치 않은 발음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 緒言의 註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모국어 /ɥ/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중국어 元音 [y]의 정확한 발음을 학습하는 데 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중국인의 입장에서도 “혀의 모양은 [i]처럼 하고, 입술의 모양은 [u]처럼 하는(舌的姿勢像[i], 脣的姿勢像[u])” [y]가 일반적이지 않은 발음으로 인식되었던 모양이다. 혀 모양은 齊齒 혹은 平脣(展脣)의 발음과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i]를 취하면서, 입술 모양은 [u]를

한 사안이다. 《洪武正韻》의 魚韻과 模韻은 [y]韻과 [u]韻의 분립을 반영하는 分韻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切韻系韻書의 韻部體系를 分立하거나 合併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切韻系韻書의 分韻體系와 韻部 명칭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洪武正韻》의 魚韻에 대한 추정음도 기존 연구성과에서 [y]로 추정하는 예는 보편적이지 않으므로, 元音 [y]가 형성된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편목의 한계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28) 王力(1955), 《漢語講話》(《王力文集》第三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5年 3月, 第一版, p.584).

받음하듯이 圓脣으로 유지하는 발음법이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발음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여겨진다. 이런 연유로 ‘입술이 오그라들다.’ 혹은 ‘입을 오므리다.’라는 의미에서 ‘撮口’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韻母體系를 분류하는 개념으로서의 開口·齊齒·合口·撮口 등의 명칭은 明代의 《書文音義便考私編》(1587)과 《韻法直圖》·《韻法橫圖》(1612년 이전) 등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何九盈(1995: 218-219)과 정영지(2004: 323-324)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四呼의 명칭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桑紹良의 《靑郊雜著》(1581)에서 重科·次重科·輕科·極輕科로 구분한 四科가 바로 후대의 四呼에 해당하며, 重科·次重科·輕科·極輕科는 각각 合口呼·撮口呼·開口呼·齊齒呼에 해당하는 용어로 간주하였다. 특히 何九盈(1995)에서는 桑紹良이 당시의 韻母體系를 四科로 분류한 견해를 높이 평가하였다.

桑紹良의重要貢獻就是明確提出了“四科”。……“四科”就是後來的四呼。重科相當於合口呼，次重科相當於撮口呼，輕科相當於開口呼，極輕科相當於齊齒呼。桑紹良在朴隱子、潘耒之前，於16世紀下半期就能明確劃分四呼，這是值得鄭重表彰的。

桑紹良의 중요한 공헌은 ‘四科’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이다.……‘四科’는 바로 후대의 四呼이다. 重科는 合口呼에 해당하고, 次重科는 撮口呼에 해당하며, 輕科는 開口呼에, 極輕科는 齊齒呼에 해당하는 것이다. 桑紹良이 朴隱子나 潘耒보다 이른 시기인 16세기 하반기에 이미 四呼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²⁹⁾

桑紹良은 비록 四呼와 일치하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이른 시기에 실질적으로 현행 四呼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韻母를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書文音義便考私編》과 《韻法直圖》·《韻法橫圖》에서는 開口·齊齒·合口·撮口 등의 명칭이 출현하였지만, 분류 기준에서 聲母나 韻尾에 근거한 분류 명칭도 혼재하였기에,³⁰⁾ 오히려 더 이른 시기에 출현한 《靑郊雜著》의 四科 체계보다도 이론적인 근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와 일치하는

29)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肇慶: 廣東教育出版社, 1995年 9月, 第一版, pp.218-219.

30) 註23) 참조.

四呼의 네 가지 항목과 명칭으로 韻母體系를 분류한 문헌은 清代 朴隱子の 《詩詞通韻》(1685)과 潘耒(1648-1708)의 《類音》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 파악된다.

中古漢語의 兩呼四等이 近代漢語 이후의 四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元音 [y]의 형성은 가장 관건이 되는 音韻變化이다. 何九盈(1995: 212)에서는 蘭茂의 《韻略易通》(1442)에서 《中原音韻》의 魚模韻을 居魚韻과 呼模韻으로 분리한 사실에 근거하여 [y]가 형성된 시기를 15세기 중엽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趙錦華(2011)에서도 《韻略易通》의 居魚韻과 呼模韻을 각각 [y]와 [u]로 추정하였다.³¹⁾ 하지만, 《韻略易通》의 韻部體系에서 居魚韻의 韻母를 [iu]로 추정할 것인지 아니면 [y]로 추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³²⁾ 그런데 居魚韻의 추정음이 [iu]라고 가정하더라도, 《中原音韻》에서 魚模韻으로 韻部를 설정하여 [u] 계열의 韻母를 기초로 介音의 차이에 따라 韻類를 구분하는 형식으로부터 [iu] 계열의 居魚韻과 [u] 계열의 呼模韻으로 분리한 사실은, 이미 [u] 계열을 기초로 하는 呼模韻과의 확연한 차이를 반영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이 점은 居魚韻의 [iu]를 主要元音 [u]에 介音 [i]가 부가된 형식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u]와 확연한 차이를 반영하는 《韻略易通》居魚韻의 韻母 [iu](혹은 [y])는 독립된 音素 [i]와 [u]의 결합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단일 音素의 성격을 지닌 [iu]나 이미 단일 音素로 변화된 [y]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韻略易通》居魚韻의 분리를 [y]의 형성으로 간주한 何九盈(1995)의 견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元音 [y]의 형성은 介音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中古漢語 시기에 細音과 合口의 결합을 나타내던 介音 [iu]는, 合口 표지의 [u]에 細音 표지의 [i]가 부가된 형식이었다. 이 [iu]가 《韻略易通》居魚韻의 분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iu](혹은 [y]), 즉 단일 音素의 성격을 지니면서 [u]와는 다른 元音인 [y] 체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31) 趙錦華, 〈蘭茂《韻略易通》韻母系統研究(一)〉, 《咸寧學院學報》, 咸寧: 湖北科技學院, 第31卷 第1期, 2011年 1月, pp.57-59.

32) 陸志韋(1947)는 《韻略易通》의 20韻部를 분석하면서, 呼模韻의 韻母는 [u]로, 居魚韻의 韻母는 [u]와 [iu]로 추정하여 두 韻部의 主要元音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記蘭茂《韻略易通》〉, 《燕京學報》 第32期. (陸志韋近代漢語音韻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88年 1月, 第一版, p.49.)

音韻變化를 바탕으로, 습口的 [u]와는 차이가 확연한 元音 [y]의 발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술이 오그라들다.’ 혹은 ‘입을 오므리다.’라는 의미의 撮口라는 명칭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앞의 註28)에서 인용한 王力(1955)의 견해와 같이, 撮口呼는 반드시 元音 [y](韻腹)나 半元音 [y](韻頭)가 포함되어야 한다.(撮口呼必須有元音的[y](韻腹)或半元音的[y](韻頭).) 이 조건을 역으로 풀이하면, 介音이나 主要元音에 [y]가 포함되어 있으면 撮口呼라는 의미가 된다. 元音 [y]의 형성 시기를 《韻略易通》에서 居魚韻의 분립 현상에 반영된 시점으로 추정한다면, 15세기 중엽 이전에 撮口呼가 형성되었고, 中古漢語의 兩呼四等 체계는 近代漢語의 四呼 체계로 변화되는 조건이 구비된 것이다. 撮口呼의 형성과 더불어 介音 체계도 中古漢語의 [i]·[u]·[iu] 세 종류에서 近代漢語 이후에는 [i]·[u]·[y]의 세 종류로 정립되었다.

V. 韻母 /ong/과 /iong/의 分類와 標記 問題

본고의 취지는 중국어 韻母 /iong/의 分類와 音價 問題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四呼 分類법에 근거하여 중국어 韻母 /iong/의 분류 문제 및 이와 관련된 漢語拼音의 표기 問題를 분석하고, 분류 체계와 표기상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류 問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iong/과 동일한 맥락의 분류 問題가 발생하고 있는 /ong/에 대해서도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III장의 말미에서 ‘翁 [uəŋ]’과 ‘中 [tʂuŋ]’을 습口呼의 예시로, ‘雍 [yŋ]’과 ‘兄 [cyŋ]’을 撮口呼의 예시로 나열하였다. 韻母가 /ong(ㄨㄥ)/으로 구성된 ‘翁 [uəŋ]’·‘中 [tʂuŋ]’ 등의 音節을 습口呼로, /iong(ㄩㄥ)/으로 구성된 ‘雍 [yŋ]’·‘兄 [cyŋ]’ 등을 撮口呼로 규정한 본고의 견해와는 달리, 〈漢語拼音方案·韻母表〉³³⁾에서는 韻母 /ong/³⁴⁾과 /iong/을

33) 이하 〈韻母表〉로 약칭함.

34) 漢語拼音 표기의 하단에 注音符號를 병기하고 있는 〈韻母表〉에서는, 零聲母 音節에 사용되는 韻母 /ㄨㄥ/은 /uəŋ/으로 표기하여 /u/행, 즉 습口呼의 위치에 배열하였고, 聲母를 수반하는 音節의 韻母 /ㄨㄥ/은 /ong/으로 표기하여 開口呼의 위치에 분리시켜 배열하였다. 본고에서는 습口呼의 위치에 배열된 /uəŋ/은 분류와 표기가 적

각각 開口呼와 齊齒呼로 분류하고 있다. 〈韻母表〉의 영향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일부 논저에서도 〈韻母表〉와 마찬가지로 /ong/과 /iong/을 각각 開口呼와 齊齒呼로 분류한 경우가 적지 않다.

본장에서는 韻母 /ong/과 /iong/의 분류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韻母表〉를 중심으로 중국어 발음 관련 기존 연구성과에서의 분류 상황에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을 검토하고, 이러한 分歧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분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 발음 표기의 규범이 되는 漢語拼音方案에서 각 韻母를 배열한 〈韻母表〉의 韻母 분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漢語拼音方案은 1957년 11월 1일에 중국 國務院全體會議第60次會議에서 通過되었고, 1958년 2월 11일 第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에서 批准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漢語拼音方案은 字母表·聲母表·韻母表·聲調符號·隔音符號 등의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의 〈韻母表〉는 다음과 같다.³⁵⁾

〈표 2〉 漢語拼音方案 韻母表

	i 衣	u × 烏	ü 迂
a 丫 啊	ia 丫 呀	ua × 丫 蛙	
o ㄛ 喔		uo × ㄛ 窩	
e ㄜ 鵝	ie ㄝ 耶		üe ㄝ 約
ai ㄞ 哀		uai × ㄞ 歪	

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韻母表〉에서 開口呼의 위치에 배열한 韻母 /ong/의 분류와 표기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35) 본고에서는 《現代漢語詞典》(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北京: 商務印書館, 1978年 12月 第1版, 2005年 6月 第5版, pp.1867-1869.)에 수록된 漢語拼音方案을 중심으로, 《漢語大詞典》第一卷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年 12月 第1版, p.14.)에 수록된 漢語拼音方案을 참조하였다.

ei ㄟ 誼		uei ㄨㄟ 威	
ao ㄠ 熬	iao ㄧㄠ 腰		
ou ㄡ 歐	iou ㄧㄡ 憂		
an ㄢ 安	ian ㄧㄢ 烟	uan ㄨㄢ 彎	üan ㄩㄢ 冤
en ㄣ 恩	in ㄧㄣ 因	uen ㄨㄣ 溫	ün ㄩㄣ 暈
ang ㄤ 昂	iang ㄧㄤ 央	uang ㄨㄤ 汪	
eng ㄥ 亨的韻母	ing ㄧㄥ 英	ueng ㄨㄥ 翁	
ong ㄨㄥ 轟的韻母	iong ㄩㄥ 雍		

상기 〈韻母表〉는 각 韻母의 漢語拼音 하단에 注音符號를 併記하고, 注音符號 우측에 例字를 수록하였다. 가로 행으로는 主要元音과 韻尾의 일치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고, 세로 행은 四呼의 일치도에 따라 배열하였다. 세로 행은 좌측부터 介音이 없는 행과 /i/행, /u/행, /ü/행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세로 행의 배열 원칙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순서대로 開口呼·齊齒呼·合口呼·撮口呼의 순으로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韻母表〉에서는 介音의 일치도와 漢語拼音에 근거한 배열 원칙으로 인하여, 韻母 /iong/이 /i/행인 齊齒呼에 배열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漢語拼音의 표기로는 韻母 /iong/의 介音이 /i/, 主要元音이 /o/로 분석되므로 齊齒呼에 배열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英文 字母 Alphabet을 차용하고 있는 漢語拼音 표기상의 한계에서 기인한 문제로, 실제 音價에 따른 분류 원칙에는 위배된다. 注音符號의 표기는 /ㄩㄥ/으로서 撮口呼에 배열되는 것이 합당한 분류임을 알 수 있다.

韻母 /ong/이 開口呼의 위치에 배열된 것도 漢語拼音 표기상의 한계로 인한 모순이다. 開口呼로 분류된 /ong/과 合口呼의 /ueng/은 사실 동일한 韻母인데, 聲

母의 부가 여부에 따른 音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漢語拼音으로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 〈韻母表〉에 명시되어 있듯이, /ong/과 /ueng/의 注音符號는 동일하게 /ㄨㄥ/으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漢語拼音 표기법에 치중하여 동일한 韻母인 /ong/과 /ueng/을 開口呼와 撮口呼로 분리하여 배열하기보다는, 실제 音價와 注音符號 표기에 근거하여 /ong/을 /ueng/과 함께 撮口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漢語拼音方案이 중국어 발음 표기의 규범이 되는 영향력에 기인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행 학계의 중국어 발음 관련 논문과 일부 저서의 발음 관련 서술에서는 /ong/을 開口呼로, /iong/을 齊齒呼로 분류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張斌(2009)에서는 音韻變化로 인한 발음의 변화 가능성과 교학상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어 /ong/과 /iong/을 각각 開口呼와 齊齒呼로 분류하였다.

韻母ong和iong在中古語音中分別歸入撮口呼與撮口呼。現代語音學界對這兩個韻母的歸類問題論點不一。隨着語音的發展，發音上不會沒有細微的變化，這裏採用《漢語拼音方案》韻母表的排列，ong歸入撮口呼，iong歸入齊齒呼，便於教學。

韻母 /ong/과 /iong/은 中古語音³⁶⁾에서는 각각 撮口呼와 撮口呼로 분류되었다. 현대의 語音學界에서는 이 두 韻母의 분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語音이 변화함에 따라, 발음에 미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漢語拼音方案》韻母表的 배열 상황에 따라, /ong/을 撮口呼로 분류하고 /iong/을 齊齒呼로 분류하여 教學에 편리하도록 한다.³⁷⁾

한편, 邵敬敏(2001, 2007, 2012)의 경우는 연이어 개정 작업이 진행된 일련의 저서에서, 2001년에는 /ong/을 撮口呼로, /iong/은 撮口呼로 분류하였으나, 후에 2007년과 2012년에는 /ong/과 /iong/을 開口呼와 齊齒呼로 수정하였다.³⁸⁾ 이차

36) 中古語音: 中古漢語 시기에는 撮口呼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된다. 撮口呼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近代漢語 이후이므로, “近代漢語”로 서술하든지 아니면 “古代漢語”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서술한다면 표현상의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7) 張斌, 《新編現代漢語(第二版)》,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9年 8月 第二版, p.46.

38) 邵敬敏, 《現代漢語通論》,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年 6月 第1版, p.33. 《現代漢語通論(第二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7年 7月 第1版, p.31. 《現代漢語通

럼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를 개괄하여 서술하는 저작에서 부분적으로 발음 분야를 언급한 경우 이외에, /ong/과 /iong/의 분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尤敦明(1983)에서의 분석 과정과 결론을 들 수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ong/과 /iong/을 각각 撮口呼와 撮口呼로 분류하였던 北京大學中文系(1958)와 徐世榮(1980) 등 기존 연구성과의 결론을 소개하면서,³⁹⁾ 이러한 견해에 반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語音의 변화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교학 現場에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ong/과 /iong/을 開口呼와 齊齒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尤敦明(1983)에서 語音의 변화를 근거로 추론한 방식은 합리성이 미흡한 분석 과정으로 판단된다. 尤敦明(1983)은 /ong/과 /iong/이 대부분 古音의 通攝에서 유래하였고 《廣韻》音系에서 通攝은 開口呼가 아닌 撮口呼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音韻變化 과정을 거쳐 古音 通攝의 例字들이 撮口呼 계열이 아닌 開口呼나 齊齒呼로 변화한 일부 例字의 경우에 근거하여 /ong/과 /iong/도 通攝에서 開口呼와 齊齒呼로 변화한 결과라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물론 尤敦明(1983: 141)에서 제시한 通攝 撮口一等的 篷·蓬·蒙과 通攝 撮口三等的 風·瘋·豐·馮·諷·鳳·夢·封 등은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서 韻母가 [əŋ]인 開口呼로 분류된다.⁴⁰⁾ 하지만 篷·蓬·蒙·風·封 등의 경우에는, 唇音 聲母 /b/·/p/·/m/·/f/가 /u/ 이외의 撮口呼 韻母 /ua/·/uo/·/uai/·/uei/·/uan/·/uen/·/uang/·/ueng(ung)/ 등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의 聲韻 결합 규칙에 따라 韻母가 梗攝 계열인 [əŋ]으로 대체되어 형성된 音節이다. 이런 연유로, 이 경우의 例字들은 通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撮口가 아닌 開口로의 音韻變化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通攝 撮口三等的 入聲字였던 六이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서는 齊齒呼인 [liou]로 변화한 예를 들어, /iong/이 通攝 撮口三等으로부터 齊齒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방증 자료로 제시하였다. 通攝 이외에 기타 韻攝의 경우에도 撮口呼나 撮口呼에서 開口呼나 齊齒呼로 변화한

論精編》,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2年 6月 第1版, p.38.

39) 尤敦明(1983: 140) 참조. 北京大學中文系, 《現代漢語》上冊 (1958年, 高等教育出版社), pp.68-69. 徐世榮, 《普通話語音知識》(1980年, 文字改革出版社), p.84.

40) 通攝 撮口一等は 四呼 체계에서 撮口呼로, 通攝 撮口三等は 撮口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音韻變化 규율에 부합한다.

예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古音合口呼의字今音改讀開、齊兩呼這也是語音演變中的一種現象。普通話語音的ong、iong兩韻語音接近開、齊兩呼，這種現象是存在的，我們就應該承認它，採用它，在韻母分類中就按它們現有的韻腹或韻頭分別歸入開口、齊齒兩呼。這樣的歸類可以給語音教學很多方便之處。

古音에서 合口呼였던 글자들이 今音에서는 開口呼나 齊齒呼로 변화되는 것도 일종의 音韻變化 현상이다. 普通話에서 /ong/과 /iong/ 두 韻母의 語音은 開口呼와 齊齒呼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채택하여, 韻母를 분류할 때 그 韻母에 있는 韻腹과 韻頭에 따라 開口呼나 齊齒呼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語音 教學에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⁴¹⁾

尤敦明(1983: 141)에서 제시한 通攝의 例字가 古代漢語의 合口呼에서 現代漢語의 開口呼나 齊齒呼로 변화한 예는, 通攝 전체의 범주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脣音 聲母라는 특정 조건에 따른 音韻變化 현상으로는 그 규율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러한 소수의 예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여 /ong/과 /iong/을 開口呼와 齊齒呼로 추론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상기 인용문에 서술된 바와 같이, 普通話의 발음에서 /ong/과 /iong/ 두 韻母가 開口呼와 齊齒呼에 가깝다는 인식은, 漢語拼音이라는 표기 체계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漢語拼音에서는 /ong/의 主要元音으로 표기되는 /o/가 開口呼의 범주로 분류되고, /iong/은 介音 /i/가 포함된 형식이므로 齊齒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IV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中古漢語 시기에 細音 표지의 介音 [i]와 合口 표지의 介音 [u]가 결합한 合口細音의 介音 [iu]가 明代 이후 音韻變化 과정을 거쳐 元音 [y]로 변화함으로써 現行 四呼 체계의 정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iong/이 齊齒呼에 가깝다는 인식은 漢語拼音의 표기에 따라 /i/와 /o/를 별도의 音素인 介音과 主要元音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는 漢語拼音方案이 실제 발음의 轉寫에 중점을 두기는 하였지만, Alphabet을 차용하는 한계로 인하여 일부 音素의 표기 형식을 변형시켰

41) 尤敦明(1983: 142).

던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漢語拼音方案에서 /ong/과 /iong/이 실제 발음과 표기 형식에 괴리가 발생한 유래에 대하여, 王力(1979)에서는 수궁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漢語拼音方案委員會認為, 在拼音方案中應該盡可能少用拉丁字母u, 因為u在手寫時容易和n相混。這樣, “轟”的韻母本該是ung, 寫成了ong; “雍”的韻母本該是üing, 寫成了iong。

漢語拼音方案委員會는 漢語拼音에서 가능한 한 알파벳 u를 적게 사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u는 필기할 때 n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轟”의 韻母는 본래 /ung/이지만 /ong/으로 표기하게 되었고, “雍”의 韻母는 당연히 /üing/이지만 /iong/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⁴²⁾

표기의 편의성에 입각하여 /u/와 /ü/를 /o/와 /io/로 표기함으로써, 撮口呼로 분류되어야 할 /ung/은 /ong/으로 변모되어 開口呼로 인식되었고, 본래 撮口呼인 /üing/은 /iong/으로 변하여 介音 /i/와 主要元音 /o/ 그리고 韻尾 /ng/으로 구성된 齊齒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ong/과 /iong/을 각각 開口呼와 齊齒呼로 분류한 <韻母表>와 일부 연구성과의 결론은, 音理와 실제 音價에 근거할 때 심각한 오류로 판단된다.

韻母 /ong/을 /ueng/과 함께 撮口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라는 분석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iong/의 경우에는 실제 音價뿐만 아니라 <韻母表>에서 韻母 배열의 체계성을 고려하더라도 /eng/—/ing/—/ong(ung)/—/iong(üing)/으로 배열하여 開齊撮의 체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배열은 /ü/행의 배열에서도 체계성과 표기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ü/—/üe/—/üan/—/ün/—/iong(üing)/으로의 배열 관계는, 撮口呼 내부에서 主要元音과 韻尾 등 音素의 결합 형식에 따른 배열상의 체계성과 표기의 일관성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는 분류로 사료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漢語拼音方案의 韻母 /ong/을 撮口呼로 분류하고, /iong/을 齊齒呼로 분류하여 <韻母表>에서 韻母 배열의 체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韻母 분류의 개선과 아울러 ‘ong’과 ‘iong’으로 표기된

42) 王力, <現代漢語語音分析中的幾個問題>, 《中國語文》1979年第4期, p.281.

漢語拼音의 표기 형식도 'ung'과 'üng'으로 변환하면, 실제 음價의 반영과 音素 표기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ong/과 /iong/의 분류와 표기를 수정한 改訂 韻母表는 다음과 같다.

〈표 3〉 改訂 韻母表

	i 丨衣	u ㄨ烏	ü ㄩ迂
a ㄚ啊	ia 丨ㄚ呀	ua ㄨㄚ蛙	
o ㄛ喔		uo ㄨㄛ窩	
e ㄜ鵝	ie 丨ㄝ耶		üe ㄩㄝ約
ai ㄞ哀		uai ㄨㄞ歪	
ei ㄟ誼		uei ㄨㄝ威(零聲母) ui 歸的韻母	
ao ㄠ熬	iao 丨ㄠ腰		
ou ㄡ歐	iou 丨ㄨ憂(零聲母) iu 牛的韻母		
an ㄢ安	ian 丨ㄢ烟	uan ㄨㄢ彎	üan ㄩㄢ冤
en ㄣ恩	in 丨ㄣ因	uen ㄨㄣ溫(零聲母) un 論的韻母	ün ㄩㄣ暈
ang ㄤ昂	iang 丨ㄤ央	uang ㄨㄤ汪	
eng ㄥ亨的韻母	ing 丨ㄥ英	ueng ㄨㄥ翁(零聲母) ung 轟的韻母	üng ㄩㄥ雍

앞에서 제시했던 <표 2>의 <韻母表>에서는 韻母 /iou/·/uei/·/uen/의 경우에 “iou : | 又: 憂”·“uei : ㄨㄝ: 威”·“uen : ㄨㄣ: 溫”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본고의 <표 3> 改訂 韻母表에서는 聲母가 부가되는 音節의 韻母를 /iu/·/ui/·/un/으로 병기하여, 零聲母 音節과 聲母가 부가되는 경우의 音節이 대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ueng/—/ung/의 형식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배열하였다. 물론 <韻母表> 하단의 부연설명에서, /iou/·/uei/·/uen/ 등의 韻母 앞에 聲母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iu/·/ui/·/un/으로 표기한다는 표기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⁴³⁾ 본 改訂 韻母表에서는 /ueng/—/ung/의 배열 형식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iou/—/iu:/·/uei/—/ui:/·/uen/—/un/ 등의 대비관계를 零聲母 音節과 聲母가 부가되는 音節의 韻母 표기 형식으로 구분하여 병기하였다.

이처럼 일부 韻母에서 零聲母 音節과 聲母가 부가되는 音節의 경우에 漢語拼音의 표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조해 본 결과, <韻母表>에서 開口呼로 분류한 韻母 /ong/의 漢語拼音 표기 형식을 ‘ung’으로 수정하여 撮口呼에 배열함으로써, 韻母 배열의 체계성과 표기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한 원리로, 韻母 /iong/의 漢語拼音 표기 형식도 ‘üng’으로 수정하여 撮口呼에 배열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韻母 /ong/과 /iong/의 漢語拼音 표기 형식을 ‘ung’과 ‘üng’으로 수정한 후, 零聲母 혹은 聲母가 부가된 경우의 音節을 漢語拼音 표기 원칙에 입각하여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 / 부호는 일괄 생략하여 표기하고, 零聲母 音節은 ‘()’로 표시하였다.

ung : chung · cung · dung · gung · hung · kung · lung · nung · rung · sung ·
 tung · (weng) · zhung · zung
 üng : jung · qung · xung · (yung)⁴⁴⁾

43) 現代漢語詞典》第5版 (p.1869),《漢語大詞典》第一卷 (p.14): “iou·uei·uen前面加聲母的時候, 寫成iu·ui·un, 例如niu(牛)·gui(歸)·lun(論)。”(iou·uei·uen 등의 韻母는 앞에 聲母가 부가되는 경우에 niu(牛)·gui(歸)·lun(論) 등과 같이 iu·ui·un으로 표기한다.)

44) 漢語拼音方案의 표기 세칙에 따라, 韻母 /üng/이 ‘ung’의 형태로 표기된다. “ü行的韻母, 前面沒有聲母的時候, …… ü上兩點省略。”(ü행의 韻母 앞에 聲母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 ü 위의 두 점을 생략한다.) “ü行的韻母跟聲母j·q·x拼的時候, ……

이처럼 /ong/과 /iong/의 표기 형식을 ‘ung’과 ‘üng’으로 수정하여 음節로 구성해 본 결과, 聲母가 부가된 경우의 음節에서는 두 韻母가 동일하게 ‘ung’으로 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漢語拼音의 표기 원칙을 통하여, ‘/zun/·/cun/·/sun/·/zhun/·/chun/·/shun/·/run/·/dun/·/tun/·/nun/·/lun/·/gun/·/kun/·/hun/……’ 등에서의 ‘u’와 ‘/jun/·/qun/·/xun/’에서의 ‘ü’가 서로 다른 元音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혼동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零聲母 음節의 韻母 /ong/과 /iong/인 경우에도, 기존 漢語拼音方案 표기의 ‘wen’·‘yun’과 체계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weng’·‘yung’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합당할 것이다.

본장의 분석 결과에 따라, 韻母 /ong/과 /iong/의 漢語拼音 표기 형식을 ‘ung’과 ‘üng’으로 수정하여 각각 撮口呼와 齊齒呼에 배열하면, 〈韻母表〉에서 배열의 체계성과 표기의 일관성을 아울러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韻母 /iong/의 音價 問題

韻母 /iong/의 音價 문제는, 먼저 실제 音價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漢語拼音 표기상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音價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韻母表〉에 명시된 바와 같이, 韻母 /iong/의 注音符號 표기는 /ㄨㄥ/으로서, 漢語拼音으로 표기된 /iong/이 齊齒呼로 오인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注音符號로 표기된 /ㄨㄥ/은 [y]와 [ŋ]의 결합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iong(ㄨㄥ)/을 撮口呼로 분류하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하지만 현행 중국어 교학 현장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일선 교육 현장에서 注音符號로 발음을 표기하거나 분석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의 예외 범주에 속하는 상황일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漢語拼音으로 발음 교학 및 발음 분석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注音符號 표기 형식인 /ㄨㄥ/을 근거로 韻母 /iong/이 齊齒呼가 아닌 撮口呼임을 증명하기에는 자료 인지도의 측면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본고

ü上兩點也省略。”(ü행의 韻母 앞에 聲母 j·q·x가 부가되는 경우에도, …… ü 위의 두 점을 생략한다.) 참고: 《現代漢語詞典》第5版 (p.1869), 《漢語大詞典》第一卷 (p.14)

의 V장에서 도출한 결론과 같이, 韻母 /iong/의 漢語拼音 표기를 /iŋg/으로 수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안이다. 그런데 현행 漢語拼音 표기 체계에서는 /iong/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四呼의 분류 문제와 音價에 대한 인식 문제의 分岐는 당연한 귀결로 사료된다.

중국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漢語拼音과 注音符號 이외에도 학계에서는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國際音聲符號, 國際音聲記號)를 공인된 표기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어 학습 입문 단계에서는 IPA 표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심화 단계로 진행되는 音聲學이나 音韻學 등의 교과목에서는 音節 분석이나 개별 音素를 표기하는 경우에 IPA가 주된 표기 방식으로 활용된다. 특히, IPA는 중국어 발음 표기에 국한된 漢語拼音이나 注音符號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音聲記號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안된 표기 체계이므로, 韻母 /iong/의 音價 분석에 있어서도 IPA 표기는 유효한 근거 자료가 된다.

그런데 /iong/의 IPA 표기 방식은 여전히 공인된 견해가 도출되지 않은 실정으로, 일부 연구성과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IPA 표기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yŋ]이나 [yʊŋ] 두 가지 형식 중에서 취사선택하는 경향인데, 이 외에도 [iuŋ]이나 [yæŋ]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韻母 /iong/의 音價 문제는 [yŋ]과 [yʊŋ] 그리고 [iuŋ]·[yæŋ] 등의 표기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 방안이 합당한 표기 형식이 되는지, 또는 이상 네 가지 표기 형식 이외에 어떠한 표기 방식이 韻母 /iong/의 音價를 적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우선 기존 연구성과에 수록된 IPA 표기 형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yŋ]이나 [yʊŋ] 이외에 [iuŋ]과 [yæŋ] 등의 표기 형식을 제안하고 있는 경우의 서술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北京大學中文系 現代漢語教研室이 편찬한 《現代漢語》에서는, 開齊合撮의 四呼로 구분한 韻母排列表에서 /ong/은 撮口呼로 분류하고 /iong/을 撮口呼로 분류함으로써, 〈韻母表〉와는 다른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본고에서 수정한 改訂 韻母表와 일치하는 분류 형식이다. 하지만 해당 韻母排列表에서는 /iong/의 IPA 표기 형식으로 [iuŋ]과 [yŋ]을 병기하고 있는데, 이 중의 [iuŋ]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韻母 /iong/을 [iuŋ]으로 표기한다면 撮口呼가 아닌 齊齒

呼에 배열되어야 하므로, [iɯŋ]으로 표기하고 撮口呼에 배열하는 것은 분류와 표기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해당 韻母排列表의 하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여 서술하고 있다.

iŋg의 實際讀音開頭往往帶有圓脣成分，歸入齊齒或撮口是兩可的。漢語拼音方案根據字母形式歸入齊齒呼，如果從語音系統整齊考慮，就應該歸入撮口呼，國際音標可以標寫成[yŋ]或[yuŋ]。

韻母 /iŋg/의 실제 발음은 韻頭(介音)가 흔히 圓脣 성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齊齒呼로 분류하든 撮口呼로 분류하든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방안이다. 漢語拼音方案에서는 字母의 표기 형식에 근거하여 齊齒呼로 분류하였는데, 만약 語音 체계의 규칙성과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撮口呼로 분류해야 하고, IPA로는 [yŋ]이나 [yuŋ]으로 표기하면 된다.⁴⁵⁾

부연설명의 내용과 자체 韻母排列表에 명시된 IPA 표기 형식을 취합하면, [iɯŋ]·[yŋ]·[yuŋ] 세 가지 형식의 표기가 모두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iɯŋ]은 /i/가 介音, /u/가 主要元音, /ŋ/이 韻尾로 분석되므로 齊齒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상의 모순에 대하여 부연설명에서는 “漢語拼音方案根據字母形式歸入齊齒呼(漢語拼音方案에서는 字母의 표기 형식에 근거하여 齊齒呼로 분류하였다.)”라고 서술하여 표기의 근거가 漢語拼音의 /iŋg/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語音 체계의 규칙성과 일관성에 근거하여 撮口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아울러 표명하고 [yŋ]이나 [yuŋ]으로 표기하는 형식을 제시함으로써, 齊齒呼와 撮口呼로의 분류 가능성과 [iɯŋ]·[yŋ]·[yuŋ]의 표기 형식을 두루 수용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최영애(1998)에서는 /iŋg/의 구성 요소와 音價 분석을 바탕으로 漢語拼音 표기와 IPA 표기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eng, ing, ong, iŋg에서 eng의 e는 [ə]음이며, ong의 o음은 uo, ou에서의 o처럼 낮지 않으며 [u]에 가깝다. 또한 iŋg에서의 o 역시 실제음은 [u]이며, 介音 i는 원순음 [y]가 되므로 실제음은 [yuŋ]이다.

45) 北京大學中文系 現代漢語教研室, 《現代漢語》, 北京: 商務印書館, 1993年 7月 第一版, 1997年 5月 北京第3次印刷, pp.58-59.

……중략……

撮口 iong는 üeng[yəŋ]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四呼의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 있어서 介音 ü의 圓脣성이 그리 강하지 않고, 주요모음이 [u]음에 가까우므로 üeng 표기가 좀 지나치다고 한다면, 최소한 iung로 표기하는 것이 음운학적으로는 iong보다는 합리적이다.⁴⁶⁾

상기 인용된 내용에 근거하면 韻母 /iong/의 IPA 표기 방식은 [yʊŋ]과 [yəŋ]의 두 가지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漢語拼音 표기는 /üeng/과 /iung/의 두 가지 형식을 제안하였다. IPA 표기 방식으로 제시한 [yʊŋ]과 [yəŋ]은, 형식상 介音과 韻尾는 동일하지만 主要元音에서 後舌圓脣高母音 [u]와 中央元音 [ə]의 두 경우로 차이를 보인다. [yʊŋ]은 실제 音價에 근거한 표기 방안으로 서술하였고, [yəŋ]은 四呼의 원칙에 입각한 표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介音의 音價에 대한 분석에서는 “介音 i는 원순음 [y]가 되므로”라는 서술과 “介音 ü의 圓脣성이 그리 강하지 않고”라는 서술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 漢語拼音 표기로 제안된 /üeng/과 /iung/은 四呼의 분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형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üeng/은 介音が /ü/이므로 撮口呼로 분류되어 최영애(1998: 87)에 수록된 韻母排列表의 배열 방식과 일치한다. 다만 主要元音を /e/로 규정한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반면에 /iung/은 齊齒呼로 분류되어 해당 韻母排列表의 배열 방식과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i/가 介音으로 분석되고 /u/가 主要元音으로 분석되는 音素 결합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漢語拼音 표기와 IPA 표기 방식이라는 범주의 차이는 있지만, 상기 《現代漢語》에서 제시한 [iʊŋ]과 최영애(1998: 87)에서 제안한 /iung/은 동일한 音素의 구성으로 분석된다. 이 형식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韻母 /iong/이 撮口呼가 아닌 齊齒呼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다. 그런데, [i]와 [u] 두 音素가 介音과 主要元音의 관계로 결합하는 것이 音節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漢語拼音의 표기 원칙에서, 韻母 /iou/와 /uei/는 聲母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각각 /iu/와 /ui/로 표기된다. 하지만 IPA에서는 漢語拼音 표기에서 생략된 主要元

46)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서울: 통나무, 1998년 10월 초판, 2008년 2월 개정증보판, pp.89-91.

홉 /o/와 /e/를 생략하지 않고 각각 [iou)와 [uei)로 표기한다.⁴⁷⁾ IPA에서 主要元홉이 표기되는 연유는, 前舌平脣高母홉 [i)와 後舌圓脣高母홉 [u)의 발음 부위와 발음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前高平脣을 특징으로 하는 [i)와 後高圓脣의 [u)가 介홉과 主要元홉 혹은 主要元홉과 韻尾의 결합 관계처럼 연이어 발음되는 音素로 결합하기에는 발성 기관의 발음 원리에서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i)에서 출발한 발성은 곧바로 [u)로 연결되지 못하고 [i)와 [u)의 발성 연결 선상에 위치하는 [o) 혹은 [ə)를 거치는 형식이 된다. 이런 연유로 [iou)라는 音節이 형성되고, 또한 일부 논저에서는 [iəu)로 표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iou)로 표기하든 [iəu)로 표기하든 중국어 발음 체계에서는 변별 작용이 없으므로 두 가지 형식이 모두 가능한 방안이다. /i—o—u/ 혹은 /i—ə—u/의 결합에서는 響度的 차이에 따라 /o/ 혹은 /ə/가 主要元홉이 되므로, 音素的 결합 관계에 따른 韻母 분류에서는 中響複韻母로 분석된다. [ue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u)의 발성이 곧바로 [i)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中間의 [e)를 거치는 형식이므로 /u—e—i/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音素 /i/와 /u/의 결합 조건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면, 《現代漢語》의 [iun)과 최영애(1998)에서의 /iunɡ/은 音素 결합 구조가 합당하지 않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iun)의 경우와는 달리, [yəŋ)과 [yun)은 介홉/y/—主要元홉/ə:u/—韻尾/ŋ/의 결합 원리로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yəŋ)으로 표기하는 경우에, 介홉 /y/와 主要元홉 /ə/의 결합은 響度的 차이에 근거할 때 가능한 설정이 되겠고, [yun)에서 /y/와 /u/의 결합은 양자가 모두 高母홉으로 響度的 차이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圓脣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中間에 타 音素的 삽입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한 결합이 된다. 이처럼 [yəŋ)과 [yun)은 音素的 결합 원리로는 가능한 설정이 되겠지만, 중국어 韻母 /ionɡ/의 音價를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방안으로 사료된다. 우선 [yəŋ)의 경우에는 主要元홉이 /ə/로 설정되는 관계로 圓脣 [y)에서 平脣 [ə)로의 변화가 우려되므로, /ionɡ/의 音價와는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는 /ionɡ/에서 /io)라는 성분이 平脣 /i)에서 圓脣 /o/로의 변화를

47) [i)와 [u)를 半母홉인 滑音(滑音, Glide)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jou)와 [wei)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앤후리 린 저, 임익상 등 역, 《중국어 말소리》(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0년 8월, 초판, pp.429-433) 참조.

의미하는 요소가 아니라 단일 音素인 /ü/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io/와 /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고의 V장에서 漢語拼音方案委員會가 /n/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u/의 사용을 자제하는 취지에서, 단일 音素인 /ü/를 /io/로 표기하였던 漢語拼音 표기 방안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漢語拼音 /iong/의 표기를 /üng/으로 수정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yœŋ]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韻母 /iong/의 圓脣이라는 音價의 특성이 손상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yœŋ]의 경우에는 /y/와 /u/의 결합이 韻母 /iong/의 圓脣이라는 속성을 유지하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高母音(前舌圓脣高母音 /y/)과 高母音(後舌圓脣高母音 /u/) 간의 결합에 따른 발성의 난점은, 위에서 분석한 前高母音 [i]와 後高母音 [u]의 결합 상황에서 /e/나 /o/, 혹은 /ə/ 등의 音素가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즉 [yœŋ]에서 介音으로 설정되는 [y]와 主要元音 [u] 사이에는 두 高母音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타 音素의 삽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響度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동일한 高母音이 介音과 主要元音으로 구분되는 불합리한 면을 감안하여, [y]와 [ŋ] 사이에 삽입되는 音素 [u]를 삭제하여 [yŋ]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⁴⁸⁾

韻母 /iong/의 IPA 표기를 [yŋ]으로 규정함으로써, <韻母表>의 배열에서 撮口呼인 ü행 [y]—[yɛ]—[yɛn]—[yŋ] 등과의 체계성과 표기의 일관성이 제고되며, <韻母表>의 가로 행에서도 [œŋ]—[iŋ]—[uŋ]—[yŋ]의 배열로 主要元音 [ə]·[i]·[u]·[y]와 각각 韻尾 [ŋ]이 결합한 형태의 체계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표기와 배열 방식은 漢語拼音으로 표기된 ü행의 /ü/—/üe/—/üan/—/ün/—/üng/ 배열과, 가로 행 /eng/—/ing/—/ung/—/üng/의 배열 체계와 일치하는 표기 방안이 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중국어 韻母 /iong/의 漢語拼音 표기를 /üng/으로 수정하고, IPA 표기는 [yŋ]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현행

48) 略式轉寫法으로는 [yŋ]으로 표기하지만, 精密轉寫法으로는 前舌母音이라는 속성의 [y]와 舌根 혹은 後舌의 발음 부위에 해당하는 軟口蓋鼻音 [ŋ]의 결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u]와 [o]의 중간에 위치하는 近後舌圓脣近高母音 [ø]를 主要元音으로 구성하여 [yœŋ]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漢語拼音 표기 /iong/의 영향으로 인하여 齊齒呼로 인식하게 되는 오류를 방지하고, 일부 논저의 IPA 표기 [iuŋ]·[yæŋ]·[yuŋ] 등에 의한 [yŋ]의 음價 혼동 현상이 감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일선 교학 현장에서는 韻母 /iong/의 圓脣 속성과 主要元音+韻尾의 결합 관계에 대한 인식을 용이하게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I. 結語

본고는 漢語拼音 표기 체계에서 /iong/으로 표기된 韻母의 음價와 四呼의 分類 문제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韻母 /iong/은 漢語拼音 표기 형식과는 달리, 실제 음價에 근거할 때 主要元音 /ü/([y])와 韻尾 /ŋ/([ŋ])의 두 音素로 분석되므로, 본고에서는 韻母 /iong/의 분석에 선행하여 元音 [y]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고, 元音 [y]의 형성으로 촉발된 撮口呼의 성립과 이로 인한 四呼 체계의 정립 과정을 분석하였다.

中古漢語 시기의 等韻圖에서는 開口·合口の 兩呼와 一·二·三·四로 구분된 四等, 즉 兩呼四等に 근거하여 韻母體系를 분류하였다. 이 兩呼四等の 분류 체계는 近代漢語 시기에 이르러 四呼 분류 체계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인 변화 양상에서, 中古漢語의 開口洪音(開口一二等)은 近代漢語 이후에 介音이 없고 主要元音이 [i]·[u]·[y] 이외의 元音으로 구성된 開口呼로 분류되었고, 開口細音(開口三四等)은 介音이나 主要元音이 [i]인 齊齒呼, 合口洪音(合口一二等)은 介音이나 主要元音이 [u]인 合口呼, 合口細音(合口三四等)은 介音이나 主要元音이 [y]인 撮口呼로 분류되었다.

元音 [y]의 형성 과정은 中古漢語 시기에 細音 표지로서의 [i]와 合口 표지인 [u]가 결합된 [iu]라는 音素로부터 유래를 추정할 수 있었다. 中古漢語의 介音 체계는 학계의 선행 연구에서 [i]·[u]·[iu] 세 종류로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iu]는 合口細音, 즉 合口呼 三四等を 나타내는 介音 형식이었다. 介音이라는 단일 요소를 표기하는 형식으로서의 [iu]는, 독립된 [i]와 [u] 두 音素의 결합 형식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단일 音素로 변해가는 과도기의 형식으로 추정하였다. 中古

漢語의 介音 체계에서 合口細音의 介音으로 사용된 [iu]는, 《韻略易通》에서 《中原音韻》의 魚模韻을 居魚韻과 呼模韻으로 분리하면서 撮口呼를 구성하는 元音 [y]로 변화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元音 [y]의 생성으로 撮口呼가 형성되면서, 近代漢語 이후의 四呼 체계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고, 現代標準中國語(普通話)에 이르러 介音과 主要元音의 차이에 따라 韻母를 분류하는 체계로 정립되었다. 韻母 분류 체계로서의 四呼는 중국어 발음 표기의 규범이 되는 漢語拼音方案의 韻母表에서 韻母를 분류하는 대부류로 활용되었다.

〈韻母表〉에서 齊齒呼 위치에 배열된 /iong/은, 漢語拼音 표기의 한계로 인하여 音素 /i/와 /o/, /ng/의 결합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介音 위치의 音素 /i/는 韻母 /iong/을 齊齒呼로 분류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실제 音價에서 /i/와 /o/는 각각 독립된 音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漢語拼音에서 표기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ü/를 /io/로 대체하여 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의 改訂 韻母表는 〈韻母表〉에서 開口呼로 분류한 /ong/을 合口呼로 수정하고, 齊齒呼로 분류되었던 /iong/을 撮口呼로 수정하여 韻母 배열의 체계성을 제고하였다. 韻母 분류의 개선과 아울러, /ong/과 /iong/으로 표기된 漢語拼音 표기도 /ung/과 /üng/으로 변환하여 실제 音價의 반영과 표기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결론에 근거하여, 중국어 韻母 /iong/의 漢語拼音 표기를 /üng/으로 수정하고, IPA 표기는 [yŋ]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현행 漢語拼音 표기 /iong/의 영향으로 인하여 齊齒呼로 인식하게 되는 오류를 방지하고, 일부 논저의 IPA 표기 [iuŋ]·[yøŋ]·[yuŋ] 등에 의한 [yŋ]의 音價 혼동 현상을 감쇄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교학 현장에서는 韻母 /iong/의 圓脣 속성에 대한 인식과 主要元音+韻尾의 결합 관계에 의한 音節 구성과 분석의 원리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진행한 韻母 /iong/의 분류 체계 및 音價에 대한 분석은, 비록 전체 韻母體系에서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韻母 분류의 체계성과 音價 분석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중국어 발음 교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原典類〕

- 明·潘耒,《類音》:《續修四庫全書》第258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清·江永,《音學辨微》:《續修四庫全書》第253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論著類〕

- 姜聿華,《中國傳統語言學要籍述論》,北京:書目文獻出版社,1992.
金英姬,《會話中心 中國語教本-初級》,서울:圖書出版 성안당,1985.
唐作藩,《音韻學教程》,1987(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2).
맹주익·유재원·임대근·정윤철,《베이직 중국어 회화-1》,서울:중국어뱅크,2008.
北京大學中文系 現代漢語教研室,《現代漢語》,北京:商務印書館,第1版,1993.
徐世榮,《普通話語音知識》,北京:文字改革出版社,1980.
邵敬敏,《現代漢語通論》,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1.
邵敬敏,《現代漢語通論(第二版)》,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7.
邵敬敏,《現代漢語通論精編》,上海:上海教育出版社,2012.
楊耐思,《中原音韻音系》,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1.
楊小鋒,〈韻母的書寫形式與發音問題〉,《四川商業高等專科學校學報》2001年第2期.
엄익상,《중국어 음운론과 응용》,서울:한국문화사,2012.
葉寶奎,《明清官話音系》,廈門:廈門大學出版社,2001.
王力,《漢語音韻》,北京:中華書局,1963(《王力文集》第5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86).
王力,《中國語言學史》,太原:山西人民出版社,1981(《王力文集》第12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0).
王力,〈漢語語音的系統性及其發展的規律性(下)〉,《社會科學戰線》,長春:吉林省社會科學院,1980年第2期.
王力,〈現代漢語語音分析中的幾個問題〉,《中國語文》1979年第4期.
王力,《漢語講話》,1955(《王力文集》第三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85).
尤敦明,〈ong和iong的歸類問題〉,《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3年01期.
尤敦明,〈漢語拼音方案中iou uei uen的“丟音”現象給語音教學帶來的向題〉,《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5年第2期.
陸志韋,〈記蘭茂《韻略易通》〉,《燕京學報》第32期,1947(《陸志韋近代漢語音韻論集》,北京:商務印書館,1988).
李新魁,《漢語音韻學》,北京:北京出版社,1986.

-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 임동석, 〈漢語에 있어서의 '四呼'와 介音에 依한 音韻 變化 研究〉, 《건대학술지》 제35집, 1991.
- 林燕慧(앤후리 린) 저, 임익상 등 역, 《중국어 말소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0.
- 張建侃, 〈ü怎樣教〉, 《文字改革》1958年13期.
- 章炳麟, 《小學略說》, 1936 (《梁啓超·章太炎解讀中華文化經典》, 沈陽: 遼海出版社, 2003).
- 張斌, 《新編現代漢語(第二版)》,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9.
- 張世祿, 《中國音韻學史》, 上海: 商務印書館, 初版, 1938 /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臺7版, 1986.
- 정수국·김화숙, 《새내기! 상황중국어 회화》, 서울: 땅따먹기, 2002.
- 정영지, 〈四呼의 名稱考〉, 《언어과학연구》 제30집, 2004.
- 趙錦華, 〈蘭茂《韻略易通》韻母系統研究(一)〉, 《咸寧學院學報》, 咸寧: 湖北科技學院, 第31卷 第1期, 2011.
- 趙誠, 《中國古代韻書》, 北京: 中華書局, 第1版, 1979 / 北京新第1版, 2003.
- 趙蔭棠, 《中原音韻研究》, 上海: 商務印書館, 初版, 1936 / 重印第1版, 1956.
- 陳躍, 〈現代漢語語音學習中易弄錯的幾個知識點〉, 《海外英語》2011年7期.
-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서울: 통나무, 초판, 1998 / 개정증보판, 2008.
-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開封: 河南人民出版社, 第1版, 1985 /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第2版, 2000.

【英文提要】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phonetic value and categorization of a Yunmu(韻母) which is written in /iong/ under the Hanyu-Pinyin(漢語拼音) notation system.

Because /iong/ is located in the Qichi-Hu(齊齒呼) section of the Yunmu-Table(《漢語拼音方案·韻母表》), it is recognized as the combination of phonemes /i/·/o/·/ng/.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Hanyu-Pinyin(漢語拼音) notation system and the placement of the phoneme under the Jieyin(介音) /i/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analyzing /iong/ as the Qichi-Hu(齊齒呼).

However, this article illustrated that /i/ and /o/ do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phonemes for their real phonetic values. For example, /io/ replaces /ü/ because it is more convenient to use the Hanyu-Pinyin(漢語拼音) notation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this study modified /ong/ into the Hekou-Hu(合口呼) which was categorized as the Kaikou-Hu(開口呼) in the Yunmu-Table(《漢語拼音方案·韻母表》), and modified /iong/ into the Cuokou-Hu(撮口呼) which was categorized as the Qichi-Hu(齊齒呼), and this study has enhanced the systemicity of the Yunmu(韻母) arrangement in the Revised Yunmu-Table(改訂韻母表).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Yunmu(韻母) categorization, the Hanyu-Pinyin(漢語拼音) notation system which is noted as /ong/ and /iong/ is also changed into /ung/ and /üng/, so the reflection of real phonetic value, the systemicity of notation and consistency could be improved.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modification of the Hanyu-Pinyin(漢語拼音) notation for /iong/ into the form /üng/, as well as the IPA notation can be specified as [yŋ].

From the conclusion, one might find it difficult to recognize /iong/ as the Qichi-Hu(齊齒呼) because of the Hanyu-Pinyin(漢語拼音) notation system's limitations. However, it does help to eliminate the confusion regarding the phonetic values of [yŋ], often referenced as [iuŋ] · [yæŋ] · [yuŋ] in other theses.

【主題語】

Hanyu-Pinyin, Yunmu-Table, IPA, /iong/, [yŋ], Sihü, Cuokou-Hu, Hekou-Hu, Categorization, Phonetic Value

漢語拼音, 韻母表, 國際音標, /iong/, [yŋ], 四呼, 撮口呼, 合口呼, 分類, 音價

투고일: 2013. 1. 15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
